

## 기타 관용어

얼굴이 두껍다, 기가 막히다, 국수를 먹다, 비행기를 태우다, 파김치가 되다, 쥐도 새도 모르게

얼굴이 두껍다:

관영어의 뜻 :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다.

### 예문

물건을 팔려면 가끔은 얼굴이 두꺼워야 해요.

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다니 얼굴이 참 두꺼운 것 같아요.

#### 대화 1

가: 저 사람 새치기하는 것 좀 보세요.

나: 저는 그렇게 줄을 안 사고 새치기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화가 나요.

가: 저렇게 얼굴 두꺼운 사람이 한 둘이 아닐 거예요.

나: 그래도 꼬마 아니까지 이렇게 줄을 잘 서는데 참 한심하네요.

#### 대화 2

어머니: 지영아, 드라마 할 시간이니까 스포츠 뉴스 그만 보고 채널 좀 돌려봐.

지영: 네, 알았어요. 어, 요즘 저 배우기 드라마에 다시 나와요?

어머니: 그럼, 잘 생겼고 연기도 잘 하잖아.

지영: 그게 아니라 몇 달 전에 음주 운전으로 구속되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빨리 텔레비전에 나올 줄 몰랐어.

어머니: 그래?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. 잘못을 알고 많이 반성했겠지.

지영: 아니예요. 엄마, 얼마나 얼굴이 두꺼운 사람인데요. 음주 운전으로 구속된 게 이번이 세 번째예요. 저 배우는 좀 더 반성해야 해요.

## 기가 막히다

**관영어의 뜻** : 1. 어떤 일이 너무 놀랍고 황당하다 2. 매우 대단하다.

### 예문

비가 오는데 우산도 없고 집에 갈 차비도 없고 참 기막히는 하루이다.  
기가 막히게 멋진 차를 새로 샀어요.

### 대화

아사코: 어제 지영 씨가 매운탕을 사 준다고 해서 시내에 갔다 왔어요.

민수: 혹시 옥쟁이 할머니 식당에 갔어요? 그 집 매운탕이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...

아사코: 네, 맞아요. 매운탕은 맛있었는데 정말 황당한 일들이 있었어요. 주인 할머니께 물 좀 더 달라고 하니깐 갑자기 나한테 욕을 하셨어요.

민수: 하하하, 그 할머니는 항상 그러세요. 할머니께서 욕을 한 것은 아사코 씨가 좋아서 그런 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. 저도 처음엔 조금 놀랐는데 지금은 재미있어서 자주 가요.

아사코: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매운탕을 다 먹고 계산을 해야 하는데 지영 씨가 또 지갑을 안 가져 온 거예요.

민수: 그래서 아사코 씨가 또 돈을 낸 모양이군요.

## 국수를 먹다

**관영어의 뜻** : 결혼식을 하거나 결혼식에 초대를 받다

누나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언제 국수를 먹게 해 줄 거냐는 말이다.

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. 올해는 국수 먹게 해 줄 거예요?

### 예문

#### 대화 1

가:부장님, 이거 제 청첩장이예요. 비뽀셔도 꼭 와 주세요.

나: 와 드디어 국수 먹겠네요. 축하해요.

가: 감사합니다.

나: 여러분, 소영 씨가 다음 달 결혼해요. 오늘 우리 축하하는 뜻에서 회식합시다.

## 대화 2

에릭: 며칠 후면 추석인데 지영 씨도 고향에 가요?

지영: 네, 그런데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요. 어휴.

에릭: 왜 한숨을 쉬어요? 가족과 친척들이 모이면 즐겁고 좋지 좋지 않아요?

지영: 즐겁고 좋긴 하지만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제게 언제 국수 먹게 해 주느냐고 묻거든요. 올해도 그 말을 들을까 봐 걱정이예요.

에릭: 지영 씨 국수 만드는 솜씨가 좋은가 봐요.

지영: 네? 그게 아니예요. 국수 먹는다는 말은 결혼을 한다는 뜻이에요.

## 비행기를 태우다

관영어의 뜻 :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칭찬하다

### 예문

비행기 태우는 줄 알았지만 잘 어울린다고 하는 점원의 말을 듣고 옷을 두 벌이나 사 버렸다.

가: 아빠, 아무리 찾아봐도 아빠처럼 멋진 남자가 없는 것 같아요.

나: 비행기 태우지 말고 솔직히 말해 봐. 용동이 필요하니?

## 대화 1

가: 야, 너 오늘 예쁘다! 다이어트 하더니 살도 많이 뺐네.

나: 그래? 살 많이 빠졌어?

가: 나는 멀리서 보고 여배우가 오는 줄 알았어.

나: 호호호,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마. 어지러워.

## 대화 2

마리오: 지영 씨, 뭘 그렇게 열심히 써요?

지영: 승우 씨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.

마리오: 매일 만나는데 편지를 쓸 필요가 있어요?

지영: 어떤 부부가 서로를 칭찬해 주는 편지를 책으로 펴냈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어요.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편지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대요. 그래서 저도 승우 씨에게서 보려고요.

마리오: 와! 승우 씨는 참 좋겠어요. 지영 씨는 얼굴은 물론이고 마음도 예쁘네요. 한국 여자들은 모두 지영 씨처럼 예쁘고 착해요?

지영: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. 이렇게 비행기를 타다가는 멀미하겠어요. 그래도 기분은 좋은데요.

마리오: 그건 비행기 태우는 게 아니라 칭찬이에요. 비행기 태우는 것과 칭찬하는 것을 다르잖아요.

## 파김치가 되다

관영어의 뜻 :몹시 지치하다

### 예문

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매일 파김치가 된다.

철수는 요즘 밤늦게까지 파김치가 되도록 열심히 일한다.

#### 대화 1

가: 무슨 일을 했는데 그렇게 피곤해 보여요?

나: 더운 날씨에 마당 청소를 좀 해서 그래요.

가: 날씨가 더울 때는 가만이 있어도 힘든데 청소까지 하셨어요?

나: 그래서 아즈 파김치가 됐어요.

#### 대화 2

선생님: 민수야, '사랑의 김치 담그기' 행사에 잘 갔다 왔어?

민수: 네, 선생님. 선생님 덕분에 좋은 경험도 쌓고 보람 있는 일도 하고 왔어요.

선생님: 그날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고생 많이 했지?

민수: 아뇨, 재미있었어요. 처음에는 고무장갑을 끼고 앞치마를 하는 게 창피해서 조금 망설였어요. 그런데 곧 익숙해져서 추운 것도 잊는 채 김치를 20 포기나 담갔어요.

선생님: 그날 행사에서 담근 김치가 몇 포기나 되니?

민수: 글썽요.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마 160 포기쯤 될 거라고 했어요. 그래서 그날 담근 김치를 부루 이웃 30 세대에게 나누어 준대요.

선생님: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왔구나.

민수: 처음 해 보는 일이라서 집에 와서는 거의 파김치가 되었어요. 그렇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피곤해도 즐거웠어요.

## 쥐도 새도 모르게

관영어의 뜻 : 아무도 모르게

## 예문

책상 위에 둔 서류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어요.

그녀는 한마디 인사도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떠나 버렸다.

## 대화

아주머니: 저기, 학생! 혹시 여기에 있던 가만색 가방 못 봤어?

민수: 가방이요? 못 봤는데요.

아주머니: 분명히 여기에 두었는데 잠깐 전화를 받는 사이에 쥐도 새도 모르게 가방이 없어졌네.

민수: 잘 찾아보셨어요? 큰 일이에요.

아주머니: 오휴, 어떻게 하지? 지갑 안에 현금이랑 신용카드도 들어 있는데.

민수: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주위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경찰서에 가 보는 것이 좋겠어요. 까만색 가방이라고 하셨지요?

아주머니: 경찰이 내 가방을 찾을 수 있을까?

민수: 먼저 카드 분실신고부터 해야겠네요.

아주머니: 학생,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. 나 혼자였으면 찾을 생각도 못했을 거야.